

‘인간×기계’...미리 만나는 미래의 예술

12월 1~3일 ‘2017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

9개국 33명 작가 영상·설치·드론 등 27개 작품
이이남·타악그룹 ‘얼쭉’ 융복합 미디어 개막 공연
13개국 유네스코 창의도시 작가교류전 함께 열려
2일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정책포럼’



캐서린 이캅&루이플레의 작품.

‘인간과 로봇이 그린 그림은 어떻게 다를까, 큐레이터 대신 인공지능이 꾸민 전시회는 어떤 모습일까? 인공지능이 해석한 우주의 모습을 전시장에서 만난다면?’

예술을 통해 미래 사회를 바라보고, 미디어아트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단초를 발견해보는 흥미로운 페스티벌이 열린다.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은 오는 12월 1일부터 3일까지 빛고를 시민문화관 지하2층 전시장, 빛고을아트스페이스 홀로그래프극장 등 빛고을시민문화관 일대에서 ‘2017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이남·얼쭉 등이 참여하는 개막공연 ‘더 오케스트라...두개의 현실’



팀보이드 ‘예술가의 길’

지난 2014년 유네스코 미디어 아트 창의도시 시에 선정된 광주는 미디어아트페스티벌을 비롯해 다양한 행사를 통해 지명도를 높여왔다. 특히 지난 13일 29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플랫폼 건립이 확정되고 미디어 아트 부코디네이터 도시로도 선정되면서 사업에 탄력을 받고 있다.

‘인간×기계 시스템’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주제전과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작가교류전을 포함해 9개국 작가 33명이 참여, 영상·설치·홀로그래프·VR·드론 등 다양한 첨단 기술장치를 현대미술과 접목시킨 27개 작품을 선보인다.

특히 올해는 미디어 아티스트들과 도시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미디어 아트와 도시 변화의 상관 관계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미디어 아트 창의도시 정책 포럼’도 열려 눈길을 끈다.

오는 12월 1일 오후 6시부터 빛고을시민문화관 대공연장에서 열리는 개막공연은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과 타악그룹 ‘얼쭉’의 융복합 미디어 공연으로 꾸며진다. 작품 ‘더 오케스트라...두개의 현실’에는 박진수(연출·안무), 김선철(클래식 음악감독), 김보람이(음악감독)도 참여한다.

본 전시에서는 빛고를 시민문화관 지하2층 전시장, 미디어338에서 ‘인간×기계 시스템, Human×Machine System’을 주제로 5개국 작가 22명의 19개 작품을 선보인다. 백남준 작가를 비롯해 영국 다리아 마틴, 덴마크 비디오아라 등 국내외 미디어 아티스트가 참여하며 작품들은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무인항공기, VR, 3차원 인쇄 기술을 바탕으로 전시, 공연, 워크숍 등 장르에 구애받지 않은 예술 언어로 구현됐다.

성용희 예술감독은 “2017광주미디어아트 페스티벌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 장치’를 예술의 중심부로 가져오는 시도를 할 것”이라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기계가 서로 주고받는 피드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주제전 이외에 유네

스코 창의도시 작가교류전도 연계 진행한다. 13개국 14개 도시 중 프랑스 리옹과 앙기앵레뱅, 일본 삿포로, 오스트리아 린츠, 이스라엘 텔아비브, 미국 오스틴, 영국 요크 등 6개국 7개 도시에서 추천한 대표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인다.

오스트리아 린츠를 대표해 참여한 로지 그릴마이어의 작품 ‘Exhy(2015)’, 벌브 콜렉티브(미국 오스틴)의 ‘Flow Factory(2016)’, 디지털 시대 가상공간에서의 인간 행동을 탐구한 리얏 세갈(이스라엘 텔아비브)의 ‘Attending Machine(2015)’, 사라짐이라는 자연적인 인간의 특성을 디지털 영상으로 보여주는 캐서린 이캅(프랑스 앙기앵레뱅)의 ‘Points Cloud Portraits(2016)’ 등이 눈길을 끈다.

12월 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광주문화재단 다목적실에서는 ‘4차 산업혁명, 미디어아트와 미래도시’를 주제로 ‘2017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정책포럼’이 열린다. 이번 포럼은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인 7개국 8개 도시 전문가가 함께 모여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의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포럼에는 유네스코 본부 조티 오사그라하 창의국장, 국토연구원 박세훈 위원의 기초발제와 프랑스 앙기앵레뱅 도미니 롤랑(프랑스 아트센터 대표), 오스트리아 린츠의 크리스티나 마우어(아르스 일렉트로니카 전시감독) 등 6개국 7명의 창의도시 전문가와 함께 광주를 대표해 전남대 이무용 교수가 참석한다.

이들 전문가는 작가교류전에 참여하는 미디어 아티스트들과 함께 ‘미디어아트가 우리의 삶과 미래 도시의 모습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라는 화두를 심도 깊게 논의할 예정이다.

주최측은 이번 포럼을 통해 부코디네이터 도시 선정으로 미디어 분야 창의도시로서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광주 창의도시간 정책포럼, 작가교류전 등 네트워크를 통해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예정이다. 문의 062-670-7492, 745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호랑가시나무 창작소 올 레지던시 마감 입주작가 5명 릴레이 개인전

내달 15일까지 아트폴리곤

광주시 남구 양림동 호랑가시나무 창작소에는 다양한 장르의 작가들이 머물며 작품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4월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통해 입주한 5명 작가들의 결과물을 공식적으로 만날 수 있는 릴레이 전시회가 13일부터 12월 15일까지 아트폴리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작가 5명이 일주일씩 개인전을 갖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릴레이 개인전의 첫 문을 여는 김승택 작가(18일까지)는 도시 속을 산책하면서 발견한 작은 공간들과 풍경들을 오묘한 색감 특유의 방식으로 평면화 재구성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그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계림동, 산수동, 신안고 등 광주 구석구석의 익숙한 공간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묘사되며 색다른 느낌을 전하며 친근하게 다가온다.

김 작가의 전시 이후에는 미디어 엑스(12월 1일~7일), 김희정(12월 9일~10일), 양나희(12월11일~15일)씨가 개인전을 통해 다양한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호랑가시나무 창작소는 청년 예술가들의 창작과 교류 활동을 지원하는 것과



김승택 작 ‘산수동’

더불어 문예학교, 예술아카데미, 오픈스튜디오, 음악 공연 등 전시, 교육, 공연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폭넓은 문화 예술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문의 062-682-097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유·스퀘어 사진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

내년 4월까지
야외갤러리



최우수작 ‘지구내 내 손안에’

유·스퀘어가 ‘제 10회 아름다운 유·스퀘어 사진 공모전’ 유·스퀘어 2층 야외갤러리에 전시한다.

최우수작에는 전경훈씨의 ‘지구내 내 손안에’가 당선됐으며 우수작에는 김범용씨의 ‘가을 숲 하늘 길’이 뽑혔다.

‘그날, 그곳, 그 순간의 이야기’를 주제로 꾸러진 수상작들은 여행에서의 추억 이야기를 사진으로 담아냈다. 여행 중 만난 친구, 특별한 경험, 색다른 볼거리 등 다양하고 즐거운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26점의 작품들은 공모가 끝난 후 시민

들의 투표를 통해 선정된 것으로, 11월 중순부터 다음 사진 공모전이 열리는 2018년 4월까지 전시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12월31일까지 유·스퀘어 문화관동산아트홀에서 선보이는 뮤지컬 ‘달을 품은 슈퍼맨’ 초대권과 상품권, CGV 영화관권 등의 상품이 주어진다.

유·스퀘어문화관은 2013년 야외갤러리를 시민참여형 문화예술 공간으로 오픈한 후, 현재 1년에 두 번씩 공모전을 통해 사진전을 열고 있다.문의 062-360-8431.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송년·신년모임
지금 예약하세요!

지난 30여년, 광주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모임을 정성껏 모셔왔습니다.

정겨운 만남은 품격있는 **아리랑하우스**에서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광주맛집 since 1981 36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1등 맛집 연속 선정 광주의 대표 맛집

광주금수장호텔
GEUMSUJIANG HOTEL